

工業所有權 認識 잘돼야

本會 李 泰燮副會長 「이코노미스트」誌와

本會 李 泰燮副會長은 지난 6月 5日字 發刊 經濟專門誌 「이코노미스트」 申東澈部長과의 인터뷰에서 發明의 날 制定背景·工業所有權出願 및 登錄現況·우리나라의 特許水準·特許의 企業化現況·뉴욕 및 제네바 國際發明展의 成果·本會 發明振興事業의 成果·尖端技術時代의 特許政策등에 대한

所信을 밝혔다.

이번 인터뷰에서 李 泰燮副會長은 尖端技術時代의 特許政策에 대해 『프랑스같은데선 大學過程에 最小限 50時間씩 工業所有權과 發明特許에 관한 敎育을 實施하는데 우리는 一部 大學 經營學課에서 講義를 하다가 없애버릴 정도로 工業所有權에 관한

■ 「발명의 날」이 부활되지 4년째 되는 걸로 아는데 5월 19일이 「發明의 날」로 정해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난 1957년 한국발명협회가 창설되면서 世宗大王이 蔣英實에 명해 測雨器를 만들었던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서 정한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73년 정부가 각종 기념일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날이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 올해로써 20회째를 맞게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 발명특허건수는 연평균 어느정도씩 신장하고 있습니까.

특허협회와 발명협회가 따로 있었던 80년대 이전엔 특허출원건수나 등록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82년 2월 오늘의 발명특허협회가 생기면서 발명에 대한 붐이 일어나 83년엔 출원건수가 5만5천여건이던 것이 작년엔 6만4천건으로 14.7%나 늘어났고 등록건수도 2만1천여건에서 2만3천여건으로 7.3%가 늘었는데 올해 들어서도 이런 추세로 늘고 있습니다.

■ 歐美日 등에 비해 우리나라 발명특허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비교해서 수준이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특허는 대부분 기술집약적인 신소재에 관한 것이 많고 내국인이 하는 것은 주로 실용신안쪽이 많은 셈입니다. 공업소유권법에 특허를 「자연법칙을 이용한 사상적 기술의 창작이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실용신안은 이부분에서 「고도한 것」만 빠진 것으로 되어있는데 日本의 경우도 「발명」못지 않게 「실용신안」도 많아요. 자잘한 실용신안을 많이 개발해 수출에 기여하는 거지요.

■ 우리나라 발명품중 기업화시켜 수출에 기여한건 어떻게 있습니까.

수없이 많지요. 노래하는 봉제완구나 종이비누도 성공한 케이스이며 최근에 개발된 인초인형이나 접철식 텐트, 그밖에 원터치 구두끈 등의 아이디어는 아주 좋아 수출에 크게 기여할 걸로 보입니다.

■ 지난 4월에 열린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선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습니까.

총 14점을 출품해서 韓電사원이 낸 「특고압전

産業發展이룩

인터뷰서 強^三

認識이 안돼있는게 탈』이라고 지적하고 『工業所有權에 대한 認識이 새로와져야 産業發展이 이룩된다』고 強調했다.

李 泰燮副會長의 인터뷰 內容을 紹介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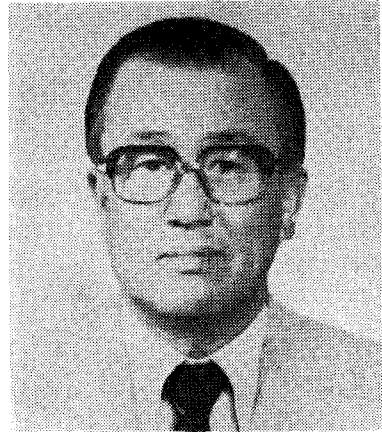
編輯者註

류계」가 금상을 받았고 「자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수축필름의 제조방법」등이 금은상 4개를 타는등 모두 11점이 수상을 했읍니다만 수상 그 자체보다도 우리의 발명수준을 세계에 과시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달에 뉴욕에서 열린 국제발명품전시회에도 15점을 출품했는데 대상을 비롯, 금상 3개, 은상 2개, 동상 1개 등을 탔읍니다.

■ 우리가 해마다 외국에서 열리는 발명품전시회에 참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에서 한번쯤 국제발명품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마다 9월에 국내 우수발명품전시회를 해오면서 저회들도 그점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왔읍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전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며 곧 타당성을 조사해서 외국의 발명인들이 어느정도 호응할지를 연구하는 정도입니다. 해마다 하느냐 아니면 隔年制로 하다가 키우느냐 하는 것도 깊이 검토해야지요.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 협회가 주관하는 발명진흥사업은 어느정도



〈本會 李 泰燮 副會長〉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상설로 운영하는 발명장려관에선 試製品위로 무료전시를 해주며 발명의 양도, 대여, 合作 투자알선등을 하고 있는데 실적도 실적이려니와 발명분위기조성에 힘이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매월 두째주일 토요일마다 열리는 「발명교실」에서 성공사례, 실패의 교훈등을 터놓고 얘기하는데 수강자가 100명이상씩 모여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강생 가운데는 젊은 과학도들이 많아 마음 든든합니다.

■ 첨단기술시대를 앞서가려면 보다 많은 기발한 발명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당장 정책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요. 다만 가장 아쉬운건 公業소유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대학을 나온 학사라면 그법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기업인들도 모르는 이가 많은게 큰 문제예요. 프랑스같은데선 대학과정에 최소한 50시간씩 公業소유권과 발명특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는 일부대학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하다가 없애버릴 정도로 公業소유권에 관한 인식이 안돼있는게 탈입니다. 公業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새로와져야 산업발진이 이룩되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發明大學같은걸 세울 구상을 갖고 있는데 우린 너무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중학교 교과과정에 公業소유권에 관한 과목을 넣어 어릴때부터 인식을 새롭게 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